

달빛어린이병원, 안정적 진료 든든

남원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 ‘톡톡’

남원시가 지난 6월 2일 공식 개소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인근 지자체 주민까지 아우르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18:00~23:00) 운영을 통해 늦은 시간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며, 개소 이후 하루 평균 14명 내외의 환자 방문으로 안정적 진료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임실·순창·장수·구례·곡성 등 지리산권 주변 지역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해,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391명의 환자가 진료받아,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부족으로 발생한 야간 진료 공백을 대체하는 동시

에, 소아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권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이용 현황은 만 9세 이하가 8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미취학·초등 저학년 아동 진료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시간대는 오후 6시~8시 사이가 전체의 68.1%로, 직장인 보호자들이 야간에 진료를 많이 찾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감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야간 전문진료의 수요가 늘고 있어, 남원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달빛어린이

병원이 지역의 소아 야간 진료 핵심 역할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자의 대부분이 ‘배우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호자들은 “야간에도 전문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꽤 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달빛 어린이병원은 남원뿐 아니라 지리산권 아이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핵심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바이오소재 엑소좀 기술개발 협력

남원시-엑소좀산업협의회-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업무협약

남원시는 20일 컨설팅호텔 여의도에서 차세대 바이오소재 엑소좀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엑소좀산업협의회-남원시-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바이오소재로 각광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7개사의 바이오기업이 가입되어 엑소좀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엑소좀산업협의회(회장 최철희)와 공동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에 큰 의미가 있다.

엑소좀은 세포 간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포체로 화장품 소재, 건강기능성식품 소재, 의약품 및 치료제 소재로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엑소좀 기반 치료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생산까지는 터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원시는 기존 동물유래 엑소좀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



하고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제조단가 경쟁력이 있는 식물유래 엑소좀 기술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정부에 식물유래 엑소좀 기술개발 및 표준화 국가연구개발사업(400억원)을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바회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 적극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담양군 농·축협, 자매결연 협약 체결

순창군과 담양군 농·축협장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농업발전과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19일 담양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장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양 지역 농·축협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순창지역에서는 이창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부분부장, 신준철 농협 순창군지부장, 양준섭 동계농협 조합장 등 7명이, 담양지역에서는 김은경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부분부장, 이광재 농협 담양군지부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양 지역 농축협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순창군은 앞으로 담양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12월 초에는 사회단체 및 민간위 행정기관 간 자매결연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쌍치 알골달골 축제 개최

순창군은 오는 22일 순창 쌍치면 일원에서 ‘2025 순창 쌍치 알골달골 축제’를 연다.

순창군은 순창발효관광재단,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한 차별화된 마을축제로, 쌍치공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금혼식, 먹거리 부스 등이 어우러져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결혼 50주년 이상을 맞은 쌍치면 주민 부부 11쌍이 참여하는 합동 금혼식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쌍치면 생산 농·특산물 판매존, 포토존, 방한 터 등 운영돼 관광객 편의성도 높인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가 20일 제3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임실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조례안 등 29건 · 예산안 심사 · 행정사무감사 실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20일 제3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원의 출결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양주영 의원의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규 의원의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철 의원의 ‘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재 의원의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의 ‘임실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29건의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임실군과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우리 군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면서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소수 지역만을 선정하는 경쟁 방식은 탈락 지역의 상실감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사무 전반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족한 점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애향장학회, 지역인재 육성 핵심 기관 자리매김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지난 30년간 40억원의 장학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 민)는 최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이사 및 감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3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핵심 장학·교육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2026년도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계획, 기부금 사용 승인안 등 총 4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애향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의 핵심 기관으로서 내년도 주요 사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장학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요 사업인 2026년도 애향장학금 지급, 봉황인재학당 운영, 학력



향상 프로그램(학원위탁), 서울장학숙 운영 등 장학·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2026년도 애향장학생은 총 120명(대학생 90명, 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서울 소재 대학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서울장학숙 운영도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황인재학당은 150명을 선발해 수준별 맞춤형 심화학습을 지원하며, 초·중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 역시 연중 운영되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 성장을 도울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우수’

남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지역 수요 반영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평가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룬 성과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건물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환경친화적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선정 후 6월 공모를 시작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6년에는 총 37억 원을 투입해 추진·수지·송동·이백 등 4개면에 414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총 1,077가구, 5,440kW 규모의 설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시민 체감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우수’

남원시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대응체계 내실화 △우수사례 등 5개 지표 12개 항목을 다뤘으며, 남원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추진 △아동학대 예방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복에서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긍정양육 홍보 캠페인으로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